정권 교체 압도적 지지…호남 인재 약진 기대감

호남 총리 '정치통' 박지원·'행정통' 김영록 물망에 올라
내각·대통령실 인선에도 광주·전남 출신 인재 기용 예상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연락소에서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선대위 관계자들이 투표가 마감된 후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할 차기 정부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 과정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만큼, '호남 총리' 발탁 가능성도 크고 내각 인선 과정에도 3명 가량 '호남 장관'도 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실시간 호흡하며, 국정을 운영하게 될 대통령실(청와대) 인선에도 광주·전남 인재들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과 호남 인사들이 국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 해결도 이끌 수 있고, 시간이 갈 수록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 정치 복원'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광주를 '정치적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등 호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호남 인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후 인사에서도 호남인들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호남 총리'를 비롯한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 인적 구성에서도 호남 인사들이 요직에 거론되고 있다.

만약, 호남에서 총리로 거론된다면 정치통으로는 박지원 국회의원, 행정통으로는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 초기에 탕평과 화합 기조 속에서 '호남 총리' 보다는 충청과 영남지역 인사가 초대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미지가 강한 총리가 대선 이후 분열과 혼란을 먼저 수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해왔던 만큼 경제를 우선 챙기는 '경제통 총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이후 정국 구상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선(先) 국정 정상화, 후(後) 내각 구성' 방안도 구체화 하고 있다. 무리한 장관 인선보다는 실무진 중심의 교체와 인선을 통해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초기에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실무 위주의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자는 방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내각 구성을 뒤로 미루고 '일 중심'의 실무진 교체를 먼저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측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일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특성상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정 정상화를 시급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실무진 교체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면서 내각을 더욱 탄탄하게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초대 내각에 광주·전남·북 출신 인사 3명 가량의 입각이 예상되고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현재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 장관에 지역 정치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남 여고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선 후 인선과 관련, "권오을 전 의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해줬다. 앞으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 나눠가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호남 출신이 중심이 돼 대통령실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점이다.

현재 이 대통령의 최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A(담양)씨가 사실상 대통령실 인선을 총지휘하고 있고, B(영광)씨·C(화순)씨 등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 해온 최측근들이 각 분야별로 인선을 이끌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1기 인사도 통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광주·전남 출신 인사 비율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 측근 그룹 중 경북과 경남지역 등 진보의 열세 지역 출신이 많고, 이들이 대거 1기 대통령실 인사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이들 TK·PK 인사들이 선임 팀장을 많이 맡은 만큼, 주요 보직에서도 탕평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밝힌 이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에 따라 보안 문제 때문에 당장 청와대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일시적으로 대통령실을 사용한 뒤 청와대로 옮겨 장기적으로 세종 이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골목대장' 박지원·정청래 맹활약…지역 국회의원들 거리 누볐다

광주·전남서 22일간 골목골목 다니며 경청 투어만 104회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시장·군수·구청장들도 힘 보태

지난 31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공원 토요장터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왼쪽)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장미원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위원장. 〈광주일보 자료 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는 호남민들의 지지가 밑거름이 됐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도 큰 이유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 선거대책위원회의 열성적인 선거운동이 호남민의 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더불어 선거운동 기간내 광주·전남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닌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지원(해남·완도·진도)·정청래(서울 마포 을) 의원의 역할도 크다는 평가다.

이들은 제 21대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광주·전남 골목대장을 자처했다.

박 의원은 광주 5개 지자체, 22개 전남 시·군을 돌며 50회에 달하는 유세를 했고, 지역 민심을 듣고 현장을 누비는 경청 투어만 무려 104회를 했다.

박 의원은 22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 총 1만502㎞를 이동하며 광주·전남 전 지역을 곳곳을 누볐다.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필요하면 서울로 향했다가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광주·전남으로 발길을 돌려 유세에 나섰다.

도심·시장 뿐 아니라 지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박 의원은 달려가 지역민들의 손을 잡고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도 같은 기간 광주·전남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총 이동거리만 6480여㎞에 달했다. 이중 광주·전남 지역민을 만나기 위해 골목골목을 돌며 걸은 거리는 110㎞에 달했다.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며, 광주도심 뿐 아니라 전남지역 시골 농로까지 다양하게 누볐다.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체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남 농촌에서는 대형 트랙터를 타기도 했고 어촌에서는 직접 개펄에서 조개를 캐면서 민심을 청취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이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과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호남권에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친위쿠데타를 도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분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오월정신 덕분으로 돌렸다.

박 의원은 "이번 대선은 시민의 승리"라면서 "호남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내란 정권 심판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호남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려는 채찍질로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두 골목대장 이외에 양부남(광주 서구을)·주철현(여수 갑)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광주선대위와 전남선대위의 역할도 컸다.

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는 내란 종식,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 조직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유례없는 시민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냈다.

각 직능 단체의 지지선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골목골목 민심을 경청했다. 광주지역에서 지지선언만 100개가 넘는 단체에서 3만7000명이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51개 단체가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박균택(광산 갑)·정진욱(동남 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신정훈(나주·화순)의원 등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초의원들도 날마다 광주·전남의 거리를 누비며 선거운동에 바빴다. 정 의원 아내이자 이 후보 배우자실 실장인 임선숙 변호사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조용한 행보로 이 후보를 도왔다.

광주·전남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의 투표독려도 큰 역할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거나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 광주시 5개 구 청장과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장들도 연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